

관계부처 합동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2019. 11. 20(수) 15:30	배포일시	2019. 11. 20(수) 14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다자경제협력팀장 황희정 (044-215-7710)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장 조성욱 (02-2100-8451)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통상과장 배성준 (044-203-5710)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장 김기용 (044-201-3526)	담당자	손아름 사무관 (044-215-7711) 김남기 서기관(02-2100-8452) 박수정 사무관 (044-203-5711) 이윤하 사무관 (044-201-352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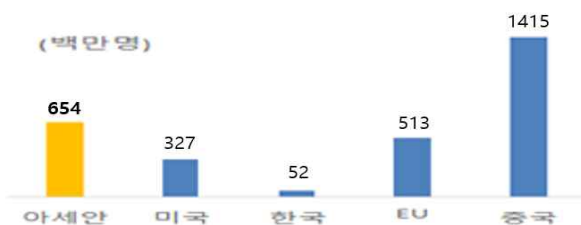
제목 : 2019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참고자료

- ◇ 2019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-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 - 아세안*(ASEAN) 시장은 총인구 6억 5천만명, GDP 2조 9천억불 수준의 거대 단일시장
 - *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):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의 10개국
 - 전세계가 주목하는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소비시장이자 생산기지로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
 -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아세안은 제2위 교역상대(1위 중국), 제3위 투자대상(1위 미국, 2위 EU)이자, 가장 큰 해외 인프라 수주시장으로서 핵심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 발전
 - 앞으로도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하여 아세안 국가 잠재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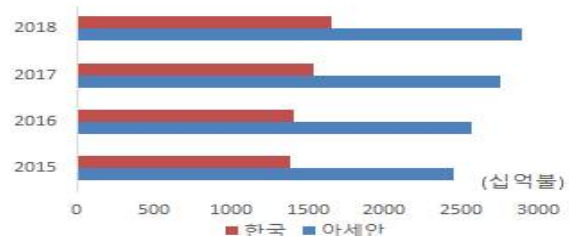
1] (아세안(ASEAN) 시장의 중요성)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소비 시장이자 생산기지 →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

- (소비시장) 총인구 6억 5천만명, GDP 2조 9천억불 수준의 거대 단일시장, 젊고 역동적인 인구구조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

세계 주요국가 인구('18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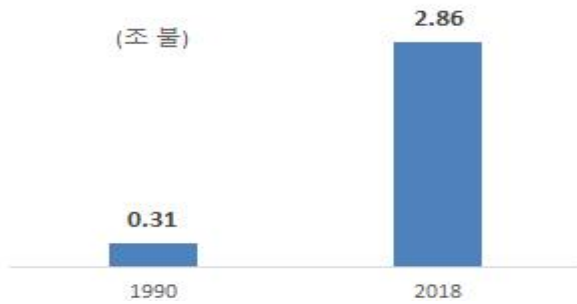


한국과 아세안 GDP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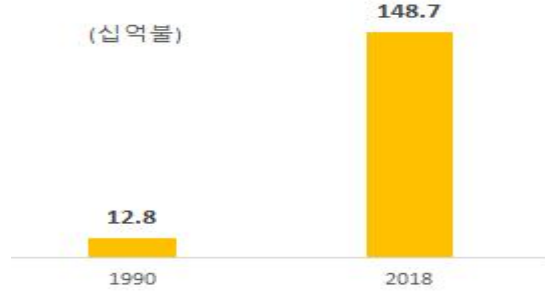


- (글로벌 생산기지) 아시아-태평양 지역의 중심지로서 지리적 이점, 풍부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
- 지난 30년간 아세안의 교역은 9배 증가하였으며, 아세안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액(FDI)도 12배 증가

아세안 무역액 추이



아세안 투자유입액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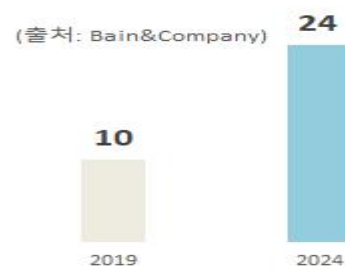


- (세계의 성장엔진) 아세안은 전세계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, 높은 유니콘 기업 성장세 등 혁신잠재력도 높은 시장

아세안 및 세계 성장률 비교



아세안 국가 유니콘 기업수(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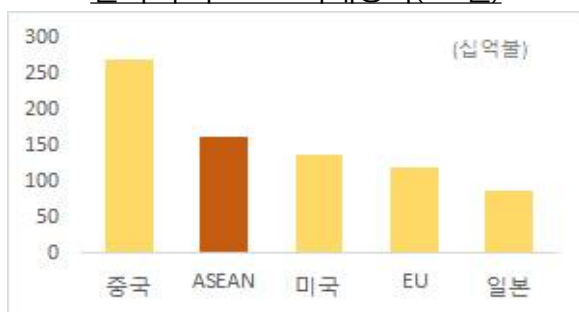


② (한-아세안 경협관계) '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핵심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 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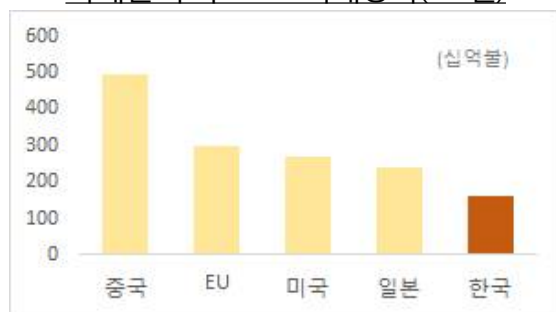
- (교역) 한-아세안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대상이며, 한국은 아세안의 제5위 교역국('18년)

* 교역규모(십억불): ('16) 119, ('17) 149, ('18) 16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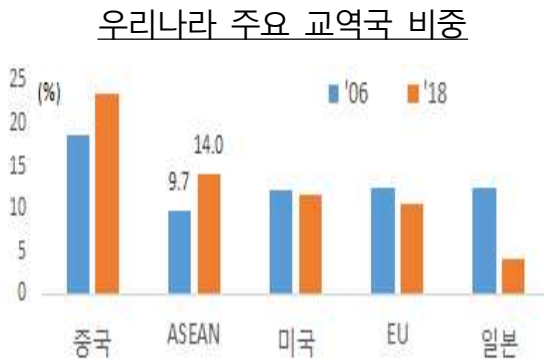
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('18년)



아세안의 주요 교역대상국('18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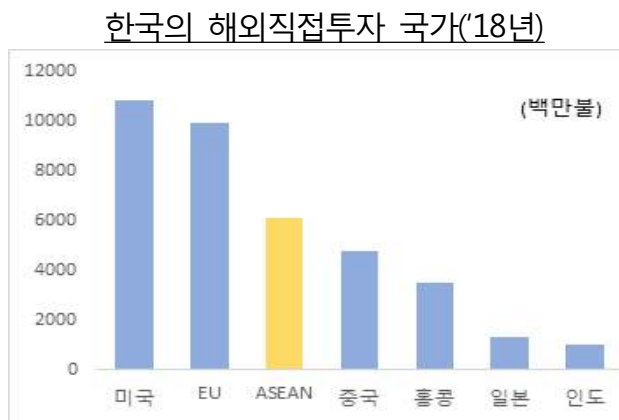


- 또한 '07년 한-아세안 FTA 발효 이후 자본집약적 상품위주로 교역이 확대되어 경제교류의 양과 질이 모두 업그레이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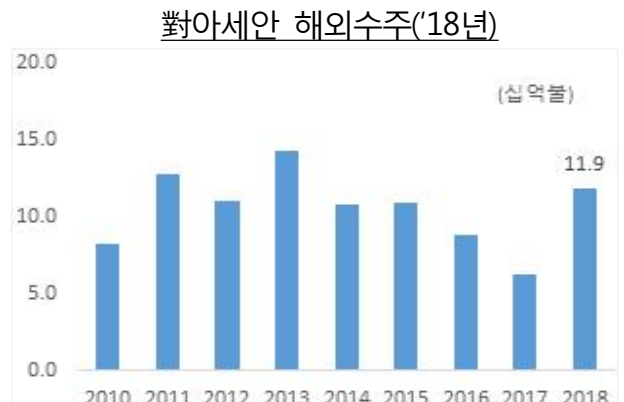


- (투자) 對아세안 투자는 지속 증가하여 아세안은 한국의 제3위 투자대상('18년)이며, 우리 진출 기업*도 꾸준히 증가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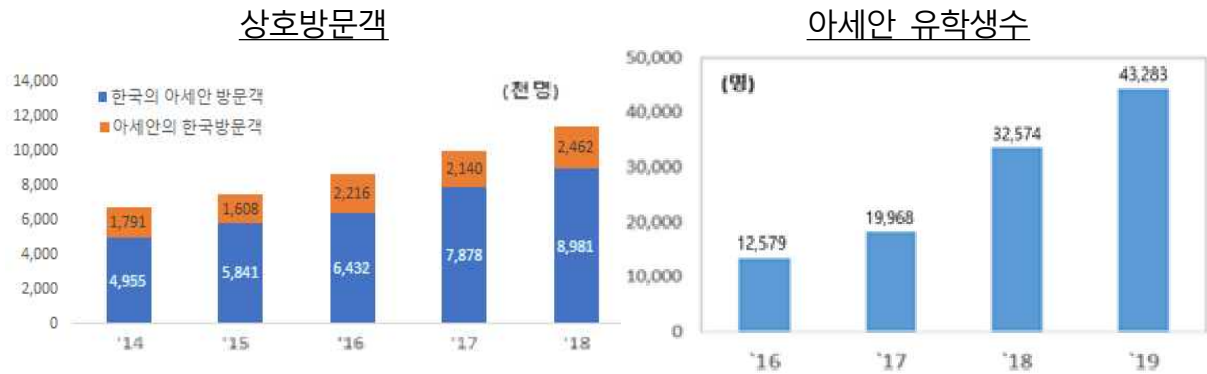
* 아세안 지역 신설법인수(개): ('14)850 ('15)928 ('16)1,091 ('17)1,131 ('18)1,292



- (수주) 아세안의 활발한 경제개발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1위 해외 인프라 수주시장



- (인적교류) 경험 확대,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상호 방문객이 빠르게 증가하여 '18년 1,100만명을 돌파
- 아세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방문지역('17년 기준)



③ (정부 정책대응) 이러한 아세안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'17년에 '신남방정책'을 천명하고 한-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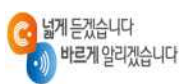
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

<p>PEOPLE</p> <p>사람공동체</p>  <p>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</p>	<p>PROSPERITY</p> <p>상생번영공동체</p>  <p>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</p>	<p>PEACE</p> <p>평화공동체</p>  <p>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</p>
---	--	---

- 특히,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정상 방문을 임기 전반에 조기 완료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기반을 마련

* ('17) 인도네시아·필리핀·베트남 ('18) 베트남·싱가폴
(19) 말레이시아·캄보디아·브루나이·태국·미얀마·라오스

- 올해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-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